

日서 송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전주 안치

동학농민혁명 125년 만에 추모공간 녹두관 영구 안장식 동학군 전주입성 기념식·문화공연·국제학술대회도 열려

일본에서 송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동학농민혁명 125년 만에 전주에 안치됐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1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전주 동학농민혁명 추모공간인 녹두관에 영구 안장하는 안장식을 엄수했다.

이 유골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인 1894년 활동하다 진도에서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농민군 지도자의 머리뼈로, 1906년 일본인이 인종학 연구를 위해 고국으로 옮겼다.

이후 이 유골은 1995년 7월 일본 북해도 대학 표본장구에서 발견돼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노력으로 이듬해 5월 국내로 돌아왔다.

하지만 안장할 곳이 없어 23년간이나 전

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왔다.

이 유골은 노제 후 동학농민군의 주요 전적지였던 완산공원에 조성된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입구의 특설무대에서 진혼의식을 거쳐 녹두관 내 추모공간으로 이동, 마침내 영면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식에 앞서 전주 완산도서관 강당에서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5주년 기념식 및 문화공연과 국제학술대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종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봉환부터 안장까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하게 됐다"며 "그동안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준 관계기관과 전주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



지난 1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영정이 유골이 안장될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으로 향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다"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6일부터 1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마당에서 동학농민군의 전주입성(5월 31일)과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기념하는 사진전, 학생작품전, 판화체험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재난도우미 운영하고 쿨링포그 설치

남원시 '폭염대응 종합대책' 어르신 쉼터 생수·열음 공급

남원시가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올여름을 앞두고 '폭염대응 종합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폭염대책을 내놓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4개 유관기관, 3개반 13개과, 23개 읍면동이 참여한 대책본부(Task Force)를 꾸리는 등 다양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기간 동안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들을 보호하고자 재난도우미 799명을 운영한다.

재난도우미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기상정보 전파와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 건강체크, 안부 전화 등

을 추진한다.

또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십수정-춘향교 사이에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시는 총정로, 용성로 등 시내 주요도로 9개 노선 18km 구간에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의 열기를 식히고, 버스 승강장과 어르신들의 쉼터에 생수·열음을 공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시원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23개 읍면동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내 530곳의 무더위쉼터에 냉방기 냉매충전 및 필터청소를 마무리했다.

무더위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와 안내표지판을 일괄 제작해 설치했다.

그 외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40개의 그늘막도 유지보수하고, 405개의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해 폭염 기상상황 및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시민 취미교육 살리기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2' 시작

군산시가 자동차와 조선산업 철수로 경기침체에 빠진 골목상권을 살리고 시민 취미교육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시즌2'가 시작했다.

군산시는 올해 두 번째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를 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가 접수한 동네문화카페 신청자는 482강좌에 2천732명, 배달강좌는 107강좌에 700명이다. 시는 경력단절 여성 74명이 수업 매니저로 신규 고용했다.

동네문화카페와 배달강좌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문화강좌를 즐기는 사업으로, 수업 장소인 소규모 식당과 카페 등 520곳의 영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평생학습정보망(<http://lll.gunsan.go.kr>)과 시 교육지원과(063-454-26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사 가요' 제례의식 재연. 지난 31일 정읍시 신정동 정해마을과 초산동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초현관) 등 정읍시문화재 제전위원들이 전통제례 풍습에 따라 '정읍사 가요'의 주인공 여인을 가리는 제례 의식을 재연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수소에너지 복합도시 도약 꿈꾼다

100MW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 건립 이도·한강에셋과 투자협약

정읍시가 수소에너지 복합사업 선도지역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정읍시는 최근 (주)이도·(주)한강에셋 자산운용과 수소에너지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에너지 복합사업은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지역 내에 100MW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도가 주관하고 한강에셋자산운용이 투자사로 참여한다.

시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나서게 된

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화력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적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8분의 1수준으로 고효율 친환경 발전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또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도 다른

친환경 에너지 대비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에너지원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우리 시는 식량과 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된다면 에너지 자급자족에 크나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국내 최고 권위 요리문화축제 익산서 열린다

2020년부터 'NS Cookfest'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진행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요리문화축제가 익산에서 개최된다.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 전문방송인 NS홈쇼핑은 최근 서울시양재동 aT센터에서 국내 최대 요리문화축제인 'NS Cookfest' 익산 이전 개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에서 개최돼 오던 'NS Cookfest'가 오는 2020년부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농업 생산기반과 농업연구개발 인프라, 기업의 식품생산 등이 접목된 지역특화 개발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이미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최대 요리축제라는 식품 관련

소프트파워가 더해짐에 따라 식품산업 비전 실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 요리축제는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개최해온 국내 최고 권위의 요리경연대회다. 행사에서는 국내산 축산물과 식자재만을 사용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식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대회가 익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식자재와 식품, 요리에 대한 관심 증폭과 각종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요리경연축제를 정부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조성한 식품클러스터 내에서 개최할 계획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와 지역의 농식품산업 지역특화 발전 전략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될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